

10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실적 불안감에 혼조..다우 0.15%↓</p>	<p>뉴욕 증시가 13일(현지시간)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음. 존슨앤존슨(J&J)의 매출 부진과 더불어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골드만삭스의 투자의견을 강등한 점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음.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4.74포인트(0.15%) 하락한 9871.06을, 나스닥 지수는 0.75포인트(0.04%) 상승한 2139.89를, S&P500 지수는 3.00포인트(0.28%) 내린 1073.19를 각각 기록했음. 이날 증시는 J&J의 실적을 놓고 장 초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음.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더욱이 J&J의 매출부진은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지수는 점차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음. 여기에다 유명 은행업종 애널리스트인 메리디스 휘트니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또 도널드 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부의장이 V자형 경기회복 가능성을 부인한 점도 증시에는 부담이 됐음. 다만 국제 유가가 수요 증가 전망을 반영하며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상승하자 주가는 오후 들어 낙폭을 다소 만회했음. 또 시스코시스템스의 스타렌트네크웍스 인수 소식은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막판 반등세로 돌아섰음.</p>
<p>시스코, 2주새 두번째 M&A 발표</p>	<p>미국 최대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는 2주 새 두번째 대형 인수합병(M&A)을 발표한 영향으로 0.32% 상승했음. 시스코의 M&A 발표는 기술업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음. 이에 따라 인텔은 0.44% 올랐고, 알테라는 0.47% 상승했음. 시스코는 이날 네트워크장치 제조업체인 스타렌트네크웍스를 2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음. 시스코는 스타렌트에 주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시스코는 앞서 지난 1일에도 비디오컨퍼런스장치 제조업체인 탠드버그를 3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p>
<p>연준 부의장 "V자형 경기회복 없다"</p>	<p>도널드 콘 미국 연준 부의장은 이른바 브이(V자)형의 빠른 경기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음. 콘 부의장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NABE)에서 가진 연설에서 "V자형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회복은 올 하반기에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 후 내년에 다소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고용시장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경제활동이 억제될 것이며, 금융 부문에서 오는 역풍이 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음. 이어 "느린 성장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상승 위험보다 하락 위험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OPEC 수요 전망 상향에 74달러대 상승	국제 유가가 13일(현지시간) 배럴당 74달러대로 상승했음.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수요 전망 상향조정이 유가를 끌어올렸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8센트(1.2%) 상승한 74.1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OPEC은 이날 10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조정할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했음. OPEC은 올해와 내년 하루 평균 원유 수요를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20만배럴 높은 8420만배럴과 8490만배럴로 제시했음.
인텔, 3분기 순익 19억 달러..예상치 상회	인텔의 3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4분기 전망도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섰음. 인텔은 1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에 순이익 19억달러(주당 33센트)와 매출액 9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했고, 매출액은 8.1% 줄었음. 그러나 팩트셋리서치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주당순이익 28센트와 매출액 90억달러를 웃돌았음. 인텔은 아울러 4분기에는 매출액이 97억~105억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이는 월가 예상치인 95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임. 폴 오텔리니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용컴퓨터(PC) 시장이 올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윤증현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걱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음.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자원개발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서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윤 장관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이 감소하는데다 주요 장치산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큰 폭의 자본투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음. 이어 "우리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자영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진입규제에 따른 경쟁 제약으로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59% 수준이며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돼 왔다"며 "당면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논의하는 일은 시기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가간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는 대부분이 정보통신(IT) 산업의 생산성과 이 결실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라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위해서라도 IT 산업의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음. 윤 장관은 또 국제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 글로벌 경제위기를 자원개발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